

“아름다운 抱川社會를 위하여”

박원순 아름다운 재단 상임이사 초청 市民대강좌

지난 9일 여성회관에서 박원순 아름다운 재단 상임이사의 '아름다운 포천사회를 위하여'라는 초청 강연이 있었다.

이번 박원순 상임이사 강연은 내년 1월경 포천동 필드내에 아름다운 가게 73호점인 포천점 개설확정에 따른 기념으로 포천상공회의소의 초청으로 이루어졌다. 이날 강연회에 박원순 상임이사를 비롯한 고조홍 국회의원, 이강립 포천시의회장 등 기관장 및 사회단체장 등 300여명이 참석해 많은 관심을 끌었다.

박 상임이사는 강연회에서 아름다운 가게를 하게 된 배경과 지금까지 아름다운 가게를 운영하면서 겪은 일, 미국과 영국 등의 기부문화를 소상하게 소개했다. 특히 2002년10월 아름다운 가게 1호인 안국점을 개설할 당시 어렵고 힘든 과정을 소상하게 소개했다. 또 중앙일보사의 적극적인 협력,



아름다운가게 73호점 확장 기념으로 박원순 상임이사를 초청해 강연을 실시했다.

경찰청과 검찰청 등 기관단체들의 지원봉사 활동 등이 있었기에 오늘날 아름다운 가게가 있었다면서 이명박 전 서울시장의 자선 봉금을 전액 기부한 등불기금 등 구체적인 사례를 소개했다. 박원순 상임이사는 "우리사회는 굉장히 발전해 경제대국이 되었으나 진정한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는

마음과 정신 수준이 높아져야 한다"면서 "사람은 낮잠으로 1시간을 행복할 수 있고 많은 부모 유산으로 10년을 행복할 없고, 평생을 행복하려면 남을 도와줘야 한다"고 강조해 청중들로부터 큰 박수를 받았다. 아름다운 가게는 시민들로부터 헌 물건을 기증 받아 손질해 산

에 되팔고 그 과잉액 발생하는 수익금으로 소외되고 어려운 국내외 이웃들과 사회 공익적 활동을 하는 지역단체를 지원하는 자선기금이다.

올해 만해상 실천부문과 막사이사이 사회봉사부문 수상한 박원순 상임이사는 경고를 졸업하고 서울대 법대 입학 민주화운동 중퇴, 단국대 사회학과 졸업, 미국 하버드대 객원연구원을 역임했다.

또 사법고시 22회 합격, 대구지검 검사제직 후 변호사 개업, 대한변협 인원위원 및 공보이사 역임, 95년 참여연대 창립 사무처장 역임 하면서 소액주주운동 전개 2002년 아름다운 가게 및 아름다운 재단 상임이사를 맡아 한국사회 기부문화와 나눔 문화를 확산시키고 있다. 2006년부터는 희망제작소 상임이사를 맡아 시민들의 아이디어를 수집해 정책에 반영하는 쉼크링크를 운영하고 있다.

하승환 기자 forme65@paran.com

추천! 이야기 한마당

받는 기쁨은 짧고 주는 기쁨은 길다



이보용 본지 지문위원

1.내가 남한테 주는 것은 언젠가 내게 다시 돌아온다. 그러나, 내가 남한테 던지는 것은 내게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

2.달릴 준비를 하는 마라톤 선수가 옷을 벗어 던지듯 무슨 일을 시작할 때는 잡념을 벗어 던져야 한다.

3.남을 좋은 쪽으로 이끄는 사람은 사다리 같다. 자신의 두 발은 땅에 있지만 머리는 벌써 높은 곳에 있다.

4.행복의 모습은 불행한 사람의 눈에만 보이고, 죽음의 모습은 병든 사람의 눈에만 보인다.

5.웃음소리가 나는 집엔 행복이 와서 들여다보고, 고향 소리가 나는 집엔 불행이 와서 들여다본다.

6.받는 기쁨은 짧고 주는 기쁨은 길다. 늘 기쁘게 사는 사람은 주는 기쁨을 가진 사람이다.

7.어떤 이는 가난과 싸우고 어떤 이는 재물과 싸운다. 가난과 싸워 이기는 사람은 많으나 재물과 싸워 이기는 사람은 적다.

8.넘어지지 않고 달리는 사람에게 사람들은 박수를 보내지 않는다. 넘어졌다 일어나 다시 달리는 사람에게 사람들은 박수를 보낸다.

9.느낌 없는 책 읽으나 마나, 깨달음 없는 종교 믿으나 마나, 진실 없는 친구 사귀나 마나, 자기 희생 없는 사랑 하나 마나.

10.마음이 원래부터 없는 이는 바보이고, 가진 마음을 버리는 이는 성인이다. 비뿔어진 마음을 바로잡는 이는 똑똑한 사람이고, 비뿔어진 마음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 이는 어리석은 사람이다.

11.누구나 다 성인이 될 수 있다. 그런데도 성인이 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자신의 것을 버리지 않기 때문이다.

12.돈으로 결혼하는 사람은 낮이 즐겁고, 육체로 결혼한 사람은 밤이 즐겁다. 그러나 마음으로 결혼한 사람은 밤낮이 다 즐겁다.

13.황금의 빛이 마음에 어두운 그림자를 만들고, 애욕의 불이 마음에 검은 그늘을 만든다.

14.두 도둑이 죽어 저승에 갔다. 한 도둑은 남의 재물을 훔쳐 지옥엔 갔고, 한 도둑은 남의 슬픔을 훔쳐 천당에 갔다.

15.막이가 있는 곳엔 틀림없이 적이 있다. 영광이 있는 곳엔 틀림없이 상처가 있다.

16.남편의 사랑이 클수록 아내의 소망은 작아지고, 아내의 사랑이 클수록 남편의 변덕은 작아진다.

17.남자는 여자의 생일을 기억하되 나이는 기억하지 말고, 여자는 남자의 용기는 기억하되 실수는 기억하지 말아야 한다. (문의 011-342-5834)

맥도날드 국내 最大 포천점 오픈

1천여명 규모 도시외곽형 1호점 24시간 운영 맥드라이브 파티룸 등 고객 최대 서비스 제공

한국맥도날드는 지난 4일 경기도 포천 43번 국도변에 국내 최대 규모 맥도날드 포천점을 오픈했다.

맥도날드 포천점은 1천여평의 대지에 정통 맥도날드 서비스를 경험할 수 있는 '포천 플래그십 매장(flagship restaurant)'과 도시외곽형 표준모델 위주로 사업전략 전환을 선언했다.

플래그십 매장은 브랜드의 표준 모델을 제시하고 그 브랜드가 갖고 있는 성격과 이미지를 극대화한 매장으로 한국 최초의 맥도날드 플래그십 매장이다.

한국맥도날드 레이 프롤리(Ray Frawley) 사장은 "맥도날드 포천 매장은 24시간 운영하며, 천 평 규모 국내 최대의 패스트푸드점"이라며 "맥드라이브, 넓은 주차장, 어린이 플레이랜드에 이르기까지 온갖 편의를 제공하는 포천 매장은 포천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현재 포천 매장에는 7~80명의 매장 직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대부분이 지역 주민으로 구성되어 있다.

포천 플래그십 매장은 차량 운전자들이 자동차를 탄 채로 음식을



국내 최대 맥도날드 포천점이 젊은층으로부터 큰 호응을 받고 있다.

주문하고 받아갈 수 있는 맥드라이브(McDrive), 플레이랜드(어린이 놀이방 시설), 파티룸, 테라스 공간, 안락한 의자와 편안한 분위기 등 맥도날드의 모든 프리미엄 서비스를 경험할 수 있는 정통매장이다. 가족 단위로 방문 시, 어린이들이 언제든 최적의 환경에서 각종 편의시설을 즐길 수 있기 때문에 부모님들은 자녀들에 대한 의무감을 덜고 보다 편안한 환경에서 식사를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하승환 기자 forme65@paran.com

제1회 포천시체육회장배 야구대회 한수이북 야구 발전의 토대



포천시야구협회(회장 장승호)는 10월30일부터 11월12일까지 제1회 포천시체육회장배 야구대회를 영북중학교에서 개최하고 있다.

이번 대회는 포천 나이스 야구단을 비롯 5개 팀과 의정부 2팀, 동두천 2팀, 양주 1팀, 연천 1팀, 철원1팀 등 모두 12팀이 참가해 실력을 겨루게 된다.

10월30일 영북중학교에서 개최된 개막식에서 장승호 포천시야구협회장은 대회사를 통해 "2006년 한 해를 되돌아 볼 때 회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지원 속에 많은 대회와 경기를 통해 야구단과 선수 여러분의 높아진 기량과 기술을 볼 수 있었다"며 "제1회 포천시체육회장배 야구대회를 토대로 한수이북의 발전된 체육활동에 포천시야구협회가 열심히 일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밝혔다.

특히 포천YMCA 창립과 함께 한국리틀야구위원회와 함께 한 국리틀야구대회와 한국야구위원회의 후원으로 포천YMCA리틀야구단이 창단하게 되었다며 적극적인 지원과 아낌없는 성원을 당부하기도 했다. 한편, 이번 대회에 참가야구단 현황은 다음과 같다.○은 감독

▶포천 나이스야구단(이정주) ▶포천 민다린덕스야구단(김원현) ▶포천 엘리트야구단(신수용) ▶포천 지이언츠야구단(이석현) ▶포천 룩스야구단(전광진) ▶의정부 회룡 카리스마야구단(김찬규) ▶의정부 트루블루스야구단(윤복동) ▶동두천 이담야구단(김도균) ▶동두천 철합 야구단(유치) ▶양주 영건스야구단(유승만) ▶연천 메니아 야구단(강영수) ▶철원 철루미야구단(곽봉호) 김명복 기자 best114@paran.com

8천여동문 和습의 한마당 잔치

2006 동남중고등학교 총동문회 400여명 참석



허기홍 총동문회장

동남중고등학교총동문회(회장 허기홍)는 전통적으로 42세가 되는 기수가 주축이 돼 11월4일 오후8시 송우웨딩홀

에서 개교 50주년 기념 2006총동문회를 4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했다.

여대 가장 많은 동문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 이날 허기홍 총동문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그동안 배출된 8천여명의 동문들은 항상 어느 단체에 있든 선배·후배들을 잊지 말고 배려를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고 "산악회·장악회 등 동문 활동 및 여러 가지

동호회에 깊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로 그 활동을 극대화하여 동문회발전에 다같이 힘을 모으자"고 당부했다.

조대행 동남고등학교 교장은 축사를 통해 "동문여러분들이 열심히 노력하여 전통을 세우고 있는 동남 개교 50주년을 맞는 행사에 많은 동문들이 참석해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며 "장학회, 산악회를 축으로 단합하기를 기대하며 동문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학생들 지도에 심혈을 기울여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최추봉, 노화진 등 유명연예인을 초청해 2부 순서를 진행하였으며 밤 10시까지 이어졌다. 이날 총동문회는 동남중학교 18회 고등학교 2회가 주축했다.

김명복 기자 best114@paran.com

제4회 오성과 한음배 전국바둑대회

優勝 박종욱 準優勝 이용만



상인 최강부 우승 박종욱(왼쪽), 준우승 이용만(오른쪽), 대회장 유왕현(가운데).

포천시바둑협회(회장 유왕현)는 11월4일부터 5일까지 이틀동안 포천종합체육관에서 제4회 오성과 한음배 전국바둑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대회는 (사)대한바둑협회와 경기도바둑협회 주관하고 포천시와 포천시의회, 경기도포천교육청이 후원해 마련됐다.

11월5일 가진 개회식에서 유왕현 포천시바둑협회장은 "제1회 국무총리배 세계아마바둑선수권 대회가 전 세계 66개국 임원과 선수가 참석한 가운데 전라북도 전주에서 개최됐고 이 기간동안 아시아바둑연맹이 창립돼 오는 2010년 중국 광저우에서 개최되는 아시안게임에 바둑이 정식종목으로 채택될 수 있는 길이 확보됐다"며 "한국바둑은 제2의 도약과 중흥을 이룰 수 있는 기로에 와 있다"고 강조하고 이번 대회를 통해 바둑인들의 모든 역량을 모아 일로 매진해 나가자고 당부했다.

한편 이번대회의 우승자 명단은 다음과 같다.

□포천지역 ▶갑조 우승 조영식 ▶을조 우승 이태일 ▶병조 우승 윤순식 ▶정조 우승 최병중 ▶장년부 우승 김대성 ▶단체전 우승 소흠음 ▶성인부 최강부 우승 박종욱 ▶소년부 우승 홍성원 ▶유치부 우승 양우석 ▶1학년부 우승 이호준 ▶2학년부 우승 조승아 ▶3학년부 우승 한지훈 ▶4학년부 우승 이남운 ▶고학년부 우승 국선호

부했다. 박원순 포천시장은 축사를 통해 "제4회 짚을 맞이하는 오성과 한음배 전국바둑대회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발전하여 바둑 동호인간의 화합은 물론 바둑 인구의 자변 확대와 바둑발전에 크게 기여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명복 기자 best114@paran.com

인물동정

산업자원부 5급 사무관 승진

포천출신 김정환 산업자원부 주사

포천출신으로 산업자원부에 근무하는 김정환씨(사진)가 11월8일 사무관 승진자로 내정됐다.

김 사무관은 포천시 영중면에서 태어나 서울 삼도초, 불건중, 오산고, 숭실대학교와 서울산업대학교 에너지환경대학원을 졸업하고 1991년8월 국가공무원 7급 주사로 임용됐다.

1991년8월 서부광산보안사무소, 대전EXPO 과전, 수화력발전

소, 디지털전자산업과, 전력산업과, 부품소재팀에 근무하고 있는 김 사무관은 소재산업발전대책 수립으로 소재산업육성에 기여하고 국산훈련기, 다목적위성 등 항공우주산업 예산확보 및 항공산업 육성에 기여해 왔다.

특히 전력기술관리법령 개정 추진 및 동법령을 개정고시하여 전기설계 및 감리의 실효성 확보에 기여했고 전기설비기술 기준, 전기품질 고시 개정으로 기존의 국제표준화에 기여한 바 있다.

김명복 기자 best114@paran.com

이재찬 신임 소흠읍 의용소방대장

신임 이재찬(45·사진) 소흠읍 의용소방대장이 10월26일 취임식을 갖고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갔다.

이 대장은 1995년 의용소방대에서 봉사활동을 시작했으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소방서의 업무를 보조하는 의용소방대 활동에 남다른 정열을

아끼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장은 취임사를 통해 "소흠읍 의용소방대 전 대원에게 누가 되지 않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이며 소방진입도로 확장 등 사업의 추진에 전진에서 으땀되는 소방대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장은 소흠읍 축구회 부회장, 자유총연맹 청년회장 등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다양한 봉사활동을 추진해 나가고 있다.

김명복 기자 best114@paran.com

‘이동면 發展의 초석으로 승화

10월30일 제9회 이동면민체육대회 성황



제9회 이동면민 체육대회에서 마걸리 빨리 마시기 대회 참가자들이 경쟁을 벌이고 있다.

이동면체육회(회장 홍성훈)는 10월29일 일요일 오전9시부터 이동초등학교 운동장에서 제9회 이동면민체육대회를 개최했다. 이동면민과 내빈, 마을주민 등 1천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으며 법정리체육회와 이동면사무소가 후원해 마련됐다.

마걸리 빨리마시기, 배구, 줄다리기, 축구, 족구, 남녀 400m 릴레이, 오래매달리기, 닭잡아가기, 노래자랑 및 경품추첨 등의 행사로 진행된 이날 기념식에서 홍성훈 이동면체육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오 늘을 아름답게 맞이하는 이동면민체육대회를 계기로 이동면이 한 걸음 앞으로 발전하는 기회로 승화될 수 있도록 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또 오늘의 자리가 면민들간의 우

의를 돈독히 하고 이 자리에 함께 해 준 모든 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기를 기원했다.

이동면은 장암리, 노곡리, 연곡리, 도평리 등 4개 법정리 20개 행정리로 구성되어 있으며 6천500여명의 주민이 농업 35%, 상업, 기타 사업에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이동면민체육대회 개최결과는 다음과 같다. ▶종합우승 도평리(상금 50만원) ▶준우승 노곡리(상금 30만원) ▶공동3위 장암리·연곡리(20만원) ▶노래자랑 ▶최우수상 우정미(도평리) ▶우수상 서상철(장암리) ▶장려상 김원순(노곡리) ▶인기상 박추자(연곡리) ▶인기상 박준희(장암리) 김명복 기자 best114@paran.com

카메라 고백

“이정표 안 보여요”



포천시가 최근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설치한 거울형 설계대비 영상카메라 및 적설계를 설치하면서 이정표를 기교로 설치했다. 따라서 양주시에서 회안고개(일명 투비위고개)를 넘어 포천시로 들어오면서 안내하고 있는 이정표를 볼 수 없게 됐다며 운전자들의 체포가 잇따르고 있다.

김명복 기자 best114@paran.com